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마무리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출연기관 체질 개선 위해 지시 조직·인사 등 180개 과제 발굴... 신속 추진키로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지난 15일자로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기관별 통일된 통

합매뉴얼 등이 담겼다.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022년에 마련한 자체혁신안의 점검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간 도 산하 공사(1), 출연기관(15)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

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자 및 실무진, 전북도 주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인사·재정·보수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제안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업무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사업 일원화 등 4개의 기능조정(안)을 제시하고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 국제협

력진흥원 이관(단기 과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중기 과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단기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분야 기능 강화(중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 및 도의 지침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전북도와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도의회의와 소통하면서, 민선 8기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엔 제시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전북'

도, 드론 영상 및 사진 전시회 다음달 1일까지 도청1 전시실

전북도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1층 전시실에서 드론 영상 및 사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라북도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드론으로 날다'라는 주제로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지역명소 등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접수받았다.

총 78점이 출품돼 기획완성도, 독창성, 활용성 등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15점(드론 영상 3점, 드론 사진 12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으며, 전시회 첫 날인 27일 오전 10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도지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작품 전시회를 통해 드론에 대한 관심 고취 및 하늘에서 본 전북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전북의 많은 명소들을 알게 되었으며, 선정된 우수작품은 도 홍보자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지난 15일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한파대비 재해복구 사업장 점검

도, 기온하강에 따른 한파쉼터 전면개방, 시설물 관리 철저 주문

전북도는 최근 아침기온이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짐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대비 상황과 함께 7월 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해복구 사업장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에 나섰다.

우선, 전북도 운동육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정읍시 내장동 부여경로당을 방문해 보일러 등 난방기기 관리상태 등 한파대책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정읍시 내장동에 위치한 부여 경로당은 보일러, 히터 등 난방기기를 가동중이며, 시설 면적 77.34㎡, 기능인원 10명으로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 겸용으로 사용중이다.

도와 시군이 함께 오는 30일까지 도내 한파쉼터(5,205개소) 전체에 대해 표지판 설치 여부, NDMS 시스템과 주소·명칭 일치여부 및 난방기기 가동현황 등 점검을 진행중이며, 미흡사항 발견 시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설·한파 특보 발령시 도내 한파쉼터(5,205개소)를 전면 개방해 취약 지역 주민을 한파쉼터로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여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운동육 실장은 7월 6일 호우로 인해 발생한 시도 35호선 사면 붕괴 재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정읍시 쌍안동 시도 35호선 사면 재해복구사업은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15일에 임시복구를 완료하여 임시통행 중이며, 현재 실시계획 진행중으로 계단식 옹벽,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항구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9억5,000만원 투입하고, 12월 공사를 착공 후 내년 우기전인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차 피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6~7월 장마기간 동안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는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행안부 특고세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하고, 내년도 우기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운동육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점검 현장에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대형화 및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고, 호우 피해로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 착공 후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에 대비해 대책기간(2024년 3월 15일까지)을 운영중에 있으며,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한파저감시설을 가동 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베트남 달랏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성료

도내 청소년 15명, 5박 6일간 떠나

전북도는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전라북도-베트남 달랏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로 진행된

전라북도-베트남 국제교류활동은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와 양국 청소년의 상호 간 협력 및 교류를 위한 것으로, 도내 청소년 15명과 청소년 지도자 5명이 참가했다.

전라북도는 국제교류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청소년 15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전라북도 문화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베트남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국제문화교류 시 필요한 자세와 역할 등

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전북도 청소년들은 달랏 시티투어 후 달랏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40명을 만나 환영식과 선물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북도 청소년들은 베트남의 문화와 가치를 체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상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제교류 소통의 장을 경험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자도 출범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논의

도,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

전북도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27일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에 따라 주민등록 시스템 등 행정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전라북도' 코드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250억건 정도의 방대한 양의 코드가 변환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로 민권발급 중단 등 전국적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데이터 전환으로 혹여나 발생치 모를 전산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데이터 전환 작업에 휴일이 작업시간에 포함돼 형편이 좋았으나 전북

특별자치도는 주중에 출범해 작업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데이터 전환작업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일정시기까지 연장하고 유예하는 방안, 민약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시스템담당자의 인사발령일을 유예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